

기요타키 지구

녹음이 우거진 기요타키 지구는 간몬 해협을 내려다볼 수 있는 급경사면에 있습니다. 기요타키라는 지명은 ‘맑은 폭포’를 뜻하며, 뱃사람들이 항해에 대비하여 통에 식수를 채운 폭포가 많이 있었던 데서 유래합니다. 20 세기 초의 전성기에는 시청(현재의 모지구청)이 있었으며, 변화한 오락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요타키의 좁은 돌담 골목길에는 한때 샴시센의 리드미컬한 소리와 손님이 기다리는 고급 요정으로 서둘러 가는 게이샤의 게타(일본의 전통적인 나막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의 ‘오쿠자시키’(안쪽에 있는 개인실)라고 불렸으며, 꽤 외설스러운 유흥가였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유명한 요정 ‘산키로’는 제 2 차 세계대전 전 정치인, 사업가, 작가 등 부유한 손님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당시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모지의 화려함이 사라지자 게이샤들이 떠나고 매춘소와 요정이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기요타키는 한적한 주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작은 아트 갤러리와 부티크, 카페도 있습니다. 모지코역에서 걸어서 10 분 정도 걸리므로 운치 있는 오솔길을 거닐면서 흐르는 시냇물과 거리의 분위기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언덕 중턱에 있는 기요타키 공원(1916 년 개원)은 일본 최초의 임학 교수이자 ‘일본 공원의 아버지’로 불리는 혼다 세이로쿠(1866~1952)가 설계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사면과 흐르는 시냇물도 기요타키의 여유롭고 시대를 초월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